

지역 소식통

김제시, 모악산 맨발
황톳길 조성 완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맨발 걷기 열풍에 맞춰 관내 최초로 모악산도립공원 내 황톳길을 조성했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숲속힐링을 위해 모악산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인 잔디광장 주변으로 2억 원을 투입해 길이 140m, 폭 3.5m의 규모의 황톳길을 조성했다.

이번 황톳길은 시범 조성으로 길이는 다소 짧으나 고운 황토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견식 황톳길과, 촉촉한 습식 황톳길을 구분지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속 시설까지 갖춰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맨발로 황톳길을 걸으며 일상 속에서 지친 몸을 풀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힐링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 현장점검

김제시(시장 정성주) 이영석 안전개발국장이 지난 20일 재해예방사업장 '울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금산면 화율리 일원)' 및 하천정비사업장 '사정소하천 정비공사(사봉면 용신리 일원)'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사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호우 대비 안전관리 의무 준수 여부, 시설물 파손 또는 균열 발생 여부, 수방자재 비치 여부, 사고발생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울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L=1.03km, 교량 5개소 정비 등이고, 사정소하천 정비공사는 2023년 3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L=1.1km, 교량 3개소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하천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호우로부터 인근마을 주민을 재해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하천 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100세 도시 김제

김제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가입을 인증받았다.

시는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인증을 받아 2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인증을 받아 2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및 어르신 섬김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축하하고 지속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고자 WHO가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8대 영역별 심사를 받았으며,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아 2024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승인됐다.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100세 도시 김제'를 비전으로 4대 목표, 8개 분야, 40개 세부 추진과제로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8개 분야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한 공간 조성, 교통환경 개선, 주거안정 보장,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확대, 어르신 사회참여와 일자리 보장, 어르신 섬김 문화 확산, 소풍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추진하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계획에 대해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에 맞춰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완주군이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한다.

24일 완주군은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정해 군

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과도 연계해 공직자들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했다.

현재 완주군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3개소, 미용업 3개소로 총 26개소이다. 현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자부심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농업인 대상 라이브커머스 교육생 28일까지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정보화 능력을 앞당기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농업정보 기술 습득 등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쇼핑 서비스) 교육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라이브커머스 고급반 시작으로 7월에는 라이브커머스 초·중급반, 추후에 있을 스마트스토어(블로그형 원스톱 구축 솔루션) 등 5개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 교육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정보화 선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마친 라이브커머스 고급반 수료생들은 지금 현재 "지평선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방송 100일 챌린지를 완료하고 이어서 100회를 목표로 방송을 이어가는 활동가들로 김제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이며 온라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초·중급반은 1인방송과 라이브커머스의 이해로 시작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메라 촬영방법, 영상 편집 문법, 생방송 방법 등 실습수업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상품기획 방법과 방송기획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23일까지(총 8회, 32시간) 진행되며,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 김제시 거주 농업인과 SNS활용 농산물 판매 관심농가 22명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더위에 농업인 건강관리 총력

완주군, 교육·캠페인 전개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홍보 활동

완주군이 이른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완주군은 올해 초부터 농업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농업인 209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6월 초부터는 SNS 등을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지난 12일에는 농촌지원과 직원들이 농가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5시간의 '농업인 안전리더 양성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을 '농업인 안전리더'로 위촉해 현장에서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전 기상정보 확인하기 △모자 쓰기, 선풍기 등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통풍이 되는 긴 옷 입기 △농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그늘막 설치 및 그늘에서 자주 쉬기 △2인 1조 작업하기 △폭염 시 농작업 자제 등을 지켜야 한다.

완주군은 무더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업현장을 점검하는 등 꾸준한 예방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물, 그늘, 휴식 등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근린공원 내 스마트 도서관

(사진=김제시청 제공)

김제시립도서관, 숲&아이 스마트도서관 2호점 오픈

검산근린 공원 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검산 근린공원 내 스마트 도서관 2호점을 25일부터 오픈한다.

검산공원 내 스마트 도서관은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 QR 전자책 도서관 등 관련 도서 대여 장비를 구비하여 도서 500권과 전자책 700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도서관 안에서는 잠깐 머무를 수 있는 도서 열람용 의자를 비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숲&아이 스마트 도서관 2호점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이며, 김제시립도서관 가입

회원으로 1인당 2권이며, 대출기간은 14일이다.

스마트도서관 2호점은 '숲&아이 생태 놀이터'내 북카페 광장 조성에 발맞추어 만들어진 결과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쉬면서 이용가능한 형태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서를 대여하고 볼 수 있어 독서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독서 생활을 위해 공원에서도 이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했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540-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